



“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변신즉생 불변즉멸(變身卽生 不變卽滅)’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만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

## 오직 ‘변화’ 만이 생존전략입니다

을유년을 맞아 새벽닭의 기상처럼 힘찬 한해를 시작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월간 <베이커리> 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제과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과회관을 마련하는 큰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제과업계에 큰 디딤돌을 놓은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어린 학생들의 정성 어린 성금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 데 대해 가슴 뭉클한 감동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과회관이 모든 제과인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유례없는 불경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회원들의 의욕이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업계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시장을 놓고 상도의(商道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서슴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 형편입니다.

우리들에겐 오직 선의의 경쟁만이 우리 업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대한제과협회에서 추진하는 한국빵·과자 경진대회 등 각종 대회와 세미나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많은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기술 연마가 이루어진다면 업소 매출 향상은 물론 업계 발전을 함께 이룰 뿐 아니라 우리들의 시장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우리들의 주위 환경을 보면서 때론 당황할 때가 많은 것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

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변신즉생 불변즉멸(變身卽生 不變卽滅)’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절대절명의 각오로 평소하고 싶었던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만이 큰 변화의 시작이며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곧 실행이며 첫 시발점이자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에 따라 일의 성패를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제과업계를 이끌어 가는 지회장과 지부장은 각 지회·지부의 회원들과 업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은 동업일가(同業一家)의 정신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할 때에 진정한 화합과 단결된 힘이 발휘되어 우리 업계를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남아시아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과인들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을 모아 진정한 나눔 사랑을 실천한다면 2005년이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협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과 큰 울타리 역할을 해주신 고문님과 원로님, 협회의 최일선에서 애쓰신 각 지회·지부장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베이커리>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 대한제과협회 수석 부회장 조 병 천